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역량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조영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형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역량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mall & medium size business in overseas entry



202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조영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주형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역량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mall & medium size business in overseas entry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조영성

조영성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정진택 (인)

심사위원 주형근 (인)

심사위원 이형용 (인)

국 문 초 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역량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컨설팅전공

조영성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은 막대한 비용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어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경상도, 전라도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239건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고 결측치가 있는 응답지 29건을 제외하고 210건의 응답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210건의 표본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적합도를 확인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내·외부 환경요인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을 제외한 내·외부 환경요인은 디지털 역량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역량을 제외한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설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전문인력역량, 네트워크 환경과 디지털 역량 강화는 기업 내 최고 결정권자인 CEO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전략이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향후 주목해야 할 정책적 요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주요어】 중소기업 환경요인, 해외진출 성과, 디지털 역량, 자동차부품 산업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제 1 절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4
제 2 절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환경요인	8
1) 내부환경요인	8
2) 외부환경요인	11
제 3 절 디지털 역량	14
1) 디지털 역량의 개념	14
2) 디지털 역량 구성요소	16
제 4 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20
제 5 절 선행연구 모형분석	22
제 3 장 연구의 설계	27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27
1) 연구모형 설정	27
2) 연구가설 설정	28
제 2 절 조사 설계	29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1
제 4 장 실증분석	32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32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34

제 3 절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36
1) 타당도 분석	36
2) 신뢰도 분석	42
제 4 절 상관관계분석	46
제 5 절 가설 검정	48
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48
2)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가설 검정	52
3)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56
4)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	59
5)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분석 요약	64
제 5 장 결론	67
제 1 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67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	70
참 고 문 헌	71
부 록	82
ABSTRACT	88

표 목 차

<표 2-1>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규모별 업체 수	4
<표 2-2> 자동차 부품산업 종업원 규모별 업체 수	5
<표 2-3> 자동차 부품산업 연도별 매출액 추이	5
<표 2-4> 자동차 부품산업 연도별 업체당 평균 납품액	6
<표 2-5> 자동차 부품산업 대륙별·연도별 수출실적	6
<표 2-6> 자동차 부품산업 대륙별·연도별 수입실적	7
<표 2-7>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목록 중	13
<표 3-1> 선행연구 요약정리	27
<표 3-2> 연구가설의 정리	28
<표 3-3> 설문지의 구성	29
<표 3-4> 모집단의 규정 및 표본	31
<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33
<표 4-2> 기술 통계분석	34
<표 4-3> 측정항목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38
<표 4-4> 공통성	39
<표 4-5> 측정항목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약	40
<표 4-6> 신뢰도 분석 결과 요약	43
<표 4-7>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약	44
<표 4-8> 상관관계분석	47
<표 4-9>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모형요약	49
<표 4-10>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분산분석	49
<표 4-1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계수	50
<표 4-12>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다중회귀분석 요약	51
<표 4-13>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52
<표 4-14>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모형요약	53
<표 4-15>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분산분석	53
<표 4-16>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계수	54
<표 4-17>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다중회귀분석 요약	55

<표 4-18>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의 가설 검정 결과	56
<표 4-19>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모형요약	57
<표 4-20>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분산분석	57
<표 4-21>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계수	58
<표 4-22>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58
<표 4-23> 매개효과 1, 3단계 모형요약	60
<표 4-24> 매개효과 1, 3단계 분산분석	60
<표 4-25> 매개효과 1, 3단계 분석 계수	61
<표 4-26>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가설 검정 결과	63
<표 4-27> Sobel Test 매개효과 검정 결과	63
<표 4-28> 매개효과분석 결과 요약	64
<표 4-29> 연구가설 검정 결과 요약	66

그 림 목 차

[그림 2-1] 이윤효(2022) 연구모형	22
[그림 2-2] 하세근(2011) 연구모형	23
[그림 2-3] 박태현(2018) 연구모형	24
[그림 2-4] 장동민(2019) 연구모형	25
[그림 2-5] 송석근(2015) 연구모형	26
[그림 3-1] 연구모형	27
[그림 4-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모형	51
[그림 4-2]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의 가설 검정 결과 모형	55
[그림 4-3]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모형	58
[그림 4-4]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형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세계 5위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완성차 제조업체와 함께 성장해온 자동차 부품기업들 또한 업체 수와 부품 분야가 다양하며 그 규모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늘어났다(이청양, 2018).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내수시장의 한계에 대한 돌파구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하여 극복해내고 있고, 완성차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의 동반 진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완성차 해외 생산/판매 규모에서는 단연 중국이 독보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김종혁, 2017).

하지만 최근 자동차부품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도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실적은 2020년 COVID-19로 인한 수요감소에 따른 기저 효과와 신흥시장 수요 회복세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한 227억 7,584만불을 달성하였고, 이중 북미 지역에 71억 3,164만불을 수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 (31.3%)을 차지하였으며, E.U(27.3%), 아시아(26.3%), 중남미(10.8%), 중동 (3.6%)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한국무역통계, 2021). 2022년 자동차 부품 수출실적은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33.2억 미국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중국으로의 부품 수출액은 13.8억불로 2021년 대비 21.6% 감소하였고, 2022년 12월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19.9억불로 이로써 2022년 7월부터 이어졌던 증가세는 꺾이고 감소세로 전환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은 막대한 비용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도출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앞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과 각종 자료를 활용한 이론적 연구 방법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치는 내부환경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고,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내 임직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측정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설문조사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는 IBM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결정요인의 빈도, 기술, 신뢰도, 타당도, 상관성 등을 분석한 후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 내부환경요인과 외부환경요인 그리고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에 대해 살펴본 후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로, 각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제시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설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될 실증분석 방법을 명시하였다.

제4장은 연구모형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력산업으로 3만 여개의 소재·부품 및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연계가 가장 큰 산업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내 고용 22만명, 수출액의 3~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미래자동차로 전환과정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업체간 인수·합병, 협력 등으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

2021년 자동차회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 타타대우)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 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732개 사이고, 이중 대기업이 297개사(40.6%), 중소기업이 435개사(59.4%)로 <표 2-1>과 같이 집계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산업 종업원 규모별 업체 수는 <표 2-2>와 같이 집계되었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022).

<표 2-1>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규모별 업체 수¹⁾(단위: 개)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증감률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중견기업			
2020	266	(25)	(241)	478	744	-9.7
2021	297	(26)	(271)	435	732	-1.6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2022), 연구자정리

1) 중소기업 기준: 3개년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2015.1.1부터 적용), 법적 기준 강화 및 3년 유예기간 종료, 부품업체의 외형 증가 등으로 대기업이 매년 증가추세

<표 2-2> 자동차 부품산업 종업원 규모별 업체 수(단위: 개)

구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합계
2020	업체 수	179	145	249	77	60	34	744
	비율(%)	24.1	19.5	33.5	10.3	8.0	4.6	100.0
2021	업체 수	178	133	252	73	60	36	732
	비율(%)	24.3	18.2	34.4	10.0	8.2	4.9	100.0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2022), 연구자정리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 현황은 2021년 기준 OEM 55조 2,215억 원, 보수용(A/S) 3조 8,655억 원, 수출 21조 6,557억 원과 현대모비스 등 모듈업체 납품액 및 부품업체 간의 거래액인 기타 55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135조 7,427억 원으로 <표 2-3>과 같이 집계되었으며, OEM 납품액은 <표 2-4>와 같이 집계되었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022).

<표 2-3> 자동차 부품산업 연도별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구분	매출실적(억 원)					증감률(%)
	OEM ²⁾	A/S ³⁾	수출 ⁴⁾	기타 ⁵⁾	합계	
2020	509,089	35,636	184,808	540,000	1,269,533	-
2021	552,215	38,655	216,557	550,000	1,357,427	6.9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2022), 연구자정리

- 2) OEM: 자동차 6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 타타대우)의 납품실적
- 3) A/S: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적으로 타이어, 배터리 등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은 제외함
- 4) 수출 : 무역통계 MTI Code(742) 자동차부품 실적에서 완성차회사의 보수용(A/S) 수출액과 KD 수출액을 제외하고 원화로 환산
- 5) 기타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모듈업체에 대한 납품액과 부품업체간의 거래액 등

<표 2-4> 자동차 부품산업 연도별 매출액 추이(단위: 억원)

구분	납품액(억원)	업체 수	업체당 평균 납품액
2020	509,089	744	684.3
2021	552,215	732	754.31
증감율(%)	8.5	-1.6	10.2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료(2022), 연구자정리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실적은 2020년 COVID-19로 인한 수요감소에 따른 기저 효과와 신흥시장 수요 회복세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한 227억 7,584만불을 달성하였다. 이중 북미 지역에 71억 3,164만불을 수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31.3%)을 차지하였으며, E.U(27.3%), 아시아(26.3%), 중남미(10.8%), 중동(3.6%) 등 순으로 <표 2-5>와 같이 집계되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2).

<표 2-5> 자동차 부품산업 대륙별·연도별 수출실적(단위: 천불)

구분	2020	2021	증감율(%)
아시아	5,159,905	5,989,344	16.1
북미	5,688,911	7,131,648	25.4
E.U	4,909,336	6,217,986	26.7
중남미	2,042,495	2,450,737	20.0
중동	694,922	809,715	16.5
대양주	93,614	106,951	14.2
아프리카	51,323	70,222	36.8
기타	10	48	365.3
합계	18,639,909	22,775,840	22.2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자료(2022), 연구자정리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수입실적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3% 증가한 62억 4,147만불 이었고, 이중 아시아 지역이 35억 431만불로 가장 높은 비중(56.1%)을 차지하였으며, E.U(30.6%), 중남미(7.8%) 등 순으로 <표 2-6>와 같이 집계되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22).

<표 2-6> 자동차 부품산업 대륙별·연도별 수입실적(단위: 천불)

구분	2020	2021	증감율(%)
아시아	3,063,930	3,504,317	14.4
북미	316,019	327,745	3.7
E.U	1,626,119	1,909,045	17.4
중남미	503,367	485,185	-3.6
중동	4,319	4,447	3.0
대양주	2,939	2,917	-0.8
아프리카	5,762	7,754	34.6
기타	8	60	628.5
합계	5,522,463	6,241,470	13.0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자료(2022), 연구자정리

제 2 절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환경요인

1) 내부환경요인

가) CEO 의지의 특성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COVID-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자인 CE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CEO는 조직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포괄적인 책임을 갖고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관리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CEO는 대부분 소유주 경영자로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긴박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 의사결정자이다 (Mazzarol & Reboud, 2020). 이렇듯 대부분의 소유주 기업인 중소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조직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CEO의 영향력은 비즈니스 개발, 전략 및 기업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치열한 경영환경에서 성공한 회사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새로운 경영시스템 채택은 CEO의 확고한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Reynolds et al., 2020).

Wang et al.(2011)이 CEO 리더십 행동, 기업성과 및 직원 태도 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관계 중심의 CEO 행동은 직원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CEO가 직접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통해 직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의 변혁적 리더십은 종업원의 긍정적 업무태도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경영진의 카리스마, 지적 능력, 방향 제시 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종업원일수록 긍정적인 업무태도를 갖게 된다(류성민·윤수현, 2005). 최고경영자의 감성 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도 CEO 신뢰는 구성원의 직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성재환 외, 2020). 이처럼 경영진의 관여는 환경친화적인 직장에서 종업원의 보조역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et al., 2019). 또한 직원들이 CEO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CEO의 행동과 회사를 지지하기 위한 지원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 Tao, 2021). 이처럼 직원은 CEO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나) 전문인력 역량의 정의

역량이란 한 개인이나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독특하고 고유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일컫는데, 이는 필요한 자산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경쟁우위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승권, 2018). 한 기업이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탁월한 자원을 모두 소유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해당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능력이 없다면 그 자원은 아무 가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량은 자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성과에 기여하게 된다(이승권, 2018).

초기에 역량을 연구했던 조직심리학자들은 구체적인 작업으로부터 성공적 직무수행자를 찾아내어 그것을 기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보았다(이승권, 2018). 특히, 1920년대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Taylor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나눌 것을 제안하면서 역량의 개념이 사용되어 졌다 (이승권, 2018). 역량은 분업화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직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Taylor는 이를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성취동기이론으로 유명한 McClelland(1973)은 현대적인 역량의 개념을 처음 정립했으며, 교육 분야에서 고성과 측정과 예측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특성이나 지식 같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역량접근법을 제시하였다(이승권, 2018). McClelland(1973)의 제안은 Boyatzis(1982), Spencer & Spencer(1993), Mirabile(1997) 등에 의해 보다 체계화 되었다.

Boyatzis(1982)는 역량을 직무에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

하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으로 보았고, Spencer & Spencer(1993)는 조직 및 직무에서 탁월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특성으로, Mirabile(1997)은 우수 성과자와 보통성과자를 구분해주는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의 특성으로 규정하였다(이승권, 2018).

McClelland(1973) 이후의 Spencer(1993)와 Mirabile(1997)의 역량 정의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개인적 특성으로 파악하였다(이승권, 2018). 주목할 부분은 역량의 개념을 연구하거나 적용하는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들 대부분이 직무 또는 업무별 우수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수성과자와 열위성과자의 차이 규명을 통해 직무 유형별로 역량을 규명하고, 역량들의 관계를 설정하여 종합하는 식으로 역량 모형을 구성한다는 점이다(이승권, 2018).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특성을 종합 하자면, 역량은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기반의 특성이며, 성과와 관련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확인 또는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이승권, 2018).

다) 기술혁신 역량의 정의

기술혁신역량(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y: TIC)은 자원기반 관점과 동태적 능력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김치국, 2021). 전자는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이 어렵고, 대체 가능성이 낮은 자원을 보유하고 경쟁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전략을 실행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기술혁신역량이 기업의 혁신전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기업 특성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매우 핵심적인 자원이며, 혁신 활동의 중요한 성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급변하는 경제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이나 기존능력을 재구성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술혁신역량이란 대상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특히 활용,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에 따른 기술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역량을 말한다. 이동석(2008)은 기술혁신 능력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공정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 도입, 채택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조직 능력으로 규정하였다(원우솔, 2011). 김치국(2021)은 기술혁신역량을 기업이 기술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며 연구개발역량, 기술축적역량 및 기술 혁신체제의 구비 정도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연구개발역량은 과학기술 분야의 자식을 획득 혹은 활동하기 위한 조직 전체차원에서 행해지는 체계적인 조직 능력이며, 기술축적역량은 신기술을 이용한 특허 취득 및 기술 이전 활용 등의 역량 그리고 기술혁신체제는 기술개발계획 수립, 시장정보 분석, 외부기관의 네트워크, 기업자원의 효율적 활용역량을 말한다.

2) 외부환경요인

가) 네트워크 환경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기업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조직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역시 중요한 무형의 자원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의 부족한 자원을 외부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광철, 2023). 특히, 조직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구조적 성장과 실질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이재희·조상미 2015; Goldman and Kahnweiler, 2000), 전략적 차원에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Longest, 1990). 이상묵(2018)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과 역량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 창출 및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써 외부조직과의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업은 경쟁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혹은 지식 등의 자원을 외부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하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안재광·김진한, 2018).

나) 정부 지원정책 정의

정부지원이란, 기업혁신에 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R&D에 관한 보조금 지원이나 연구인력 개발에 따른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Czarnitzki, Ebersberger & Fier, 2007)하고 “중소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예측하여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술혁신 및 마케팅 혁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적자원 역량강화에 도움을 준다.”(박태진, 2017; 김미향, 유재원, 김상연, 2019).

이는 정부의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윤성만, 이유환, 서영욱, 2018). 이 외에도 경영자원 부족을 비롯한 여러 자원 부족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후성, 이정수, 박재민, 2015). 정부지원은 혁신역량 강화와 환경변화 대응 등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손동섭, 이정수, 김윤배, 2017). 그 밖에도 경영자원 부족을 비롯한 여러 경영환경의 부족한 문제들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후성, 이정수, 박재민, 2015).

‘정부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식 자본을 창출할 수도 있고, 간접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비용을 낮추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박태진, 2017).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정부지원은 크게 법 규제 및 세제 지원과 같은 규제 정책,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판로 지원과 같은 유인 정책, 기술정보나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정책으로 구분된다(류숙원, 김상윤, 2010).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관련 정부지원의 중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정부지원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 재도전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지원대상과 지원 분야를 구분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대상 사업은 6개 분야(기술개발 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수출지원, 판로지원,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지원)로 표로 요약하자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목록 중

지원 대상	분야	사업 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 기술개발자금 지원 ·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인프라지원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신용보증 지원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 마케팅, 홍보 지원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양성 · 인력유입 촉진
	여성, 장애인, 지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지원 · 장애인기업 육성 · 지역기업 지원
창업, 재도전기업	창업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저변 확대 · 창업지원 인프라 · 아이디어, 기술창업 지원
	재도전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공통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애로 개선 · 해결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외부 전문가 노하우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활성화 지원

출처: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안내 책자 일부 인용, 연구자정리

제 3 절 디지털 역량

1) 디지털 역량의 개념

현대인은 첨단 지식 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디지털 환경의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가에게 반드시 요구 되는 역량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y)이다 (김형철, 2021).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로도 혼용되고 있다(최숙영, 2018). ‘디지털’은 본래 ‘손가락’을 뜻하는 디지트(Digit)라는 명사에서 ‘십진수나 숫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파생되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각종 전자와 관련된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황용석, 2012). 과거에는 디지털 역량은 주로 정보 검색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으나, 이로 인해 어떤 리터러시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디지털 리터러시보다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Cartelli A, 2010). 최근에는 디지털 관련 용어들이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디지털 활용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Bawden, 2008). 나아가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은 디지털 기술을 알고 활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이철현 & 전종호, 2020). 또한 최근 창업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김형철, 2021). 또한 경영진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어 타 기업과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Chang, Dasgupta & Hilary. 2010).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는데, EU(2006)에서는 디지털 역량은 직업, 의사소통, 휴식을 위해 정보

사회 기술을 자신감 있고 판단력 있게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Cartelli et al.(2010)는 디지털 역량을 정보공유,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연구 등을 위한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혁신과 창조성 등을 위한 기술 활용에 대한 것이라고 했으며, Ala-Mutka(2011)는 디지털 역량을 생활, 일, 의사소통 등 정보사회기술을 활용하며 평가, 정보의 배포, 저장, 표현, 생산, 교환을 위한 ICT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errari(2012)는 디지털 역량을 건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 및 협업하는 능력이라고 정의(Ferrari, 2012)했다. Westerman et al.(2014)은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내부 업무 절차를 혁신하는 방법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먼저 김현성 외(2001)는 디지털 역량을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활용이나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을 넘어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며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일반적 이해로 정의하고 있다(김형철, 2021). 이정은, 진선미(2014)는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제와 과제를 분석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소통은 물론 협업까지 가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김형철, 2021). 김희수(2016)는 디지털 역량을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김희수, 2016)하였으며, 이애화(2016)는 디지털 도구나 정보를 활용하여 일과 학습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공동체에 참여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 생산 및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애화, 2016). 한편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필두로 디지털 고객 경험 향상, 운영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추진을 의미한다고 했다(박태영, 2020). 조규태(2019)는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매우 큰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애화, 2016)이라고 말했다. 박수황(2021)은 디지털 역량을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박수황, 2021)했다. 최근 김경호(2022)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을 할 수 있으며,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기술과 채널을 사업 운영에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 디지털 역량 구성요소

가) 디지털 지식(Digital Knowledge)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내·외부 데이터로 구분되며, 사용자의 공동생산 형태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다(박수황, 2021). 기업의 내부 데이터는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를 지칭하며, 외부 데이터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 그리고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을 말한다(박수황, 2021).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가 통합되어 정보로 가공되며, 이 정보는 다시 새로운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Carla. 2006, Nieves et al. 2016). 지식을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있다고 주장하였다(Alba & Hutchinson. 2000; 박수황, 2021). 지식은 정보탐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개인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평가나 선택 행위에 미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박수황,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식을 개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수준을 나타내며, 디지털 지식은 개인이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된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arlson et al. 2009). 그 결과, 디지털 역량에서 디지털 지식은 과거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지식

의 가치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chønning, et al. 2019). 또한, 디지털 지식은 정보 검색 능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 전문성, 친숙도 등을 통해 형성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포함하고 있다(Zahra & George, 2002b, 이인태, 최진용. 2017, Yan & Wakefield. 2018).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는 디지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의 전문성, 친숙도, 그리고 이전의 경험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Valdir & Vitorino. 2018). 최고경영자가 지닌 디지털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에 대한 보유 정도 따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디지털 학습(Digital Learning)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정보기술에서 사용되었던 기술이 목적과 범위가 재정립되고 있다(박수황,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새롭게 부상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박수황, 2021).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최고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Danneels, 2008),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신기술·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최고 경영자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박수황, 2021). 그래서 최고경영자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보와 기술력을 얻기 위해 학습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ampbell, et al. 2019).

최고경영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과 전문가 도움 등이 요구되고 있다(김영배, 차종석 1999, Fenwick, 2006, 서한결, 박인서, 김성환, 채수준, 정양현. 2015) 재인용.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의 최고경영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디지털 학습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학습이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정도”이다. 디지털 학습은 급변

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학습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박수황, 2021). 디지털 학습은 다양한 학습 참여를 통해 신규 디지털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Heijden, Boon, Jlink & Meijss, 2009). 디지털 학습은 소셜 네트워크(블로그,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개인의 수준에 알맞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참여를 촉구 할 수 있다(박수황, 2021). 따라서 개인은 디지털 학습을 통해 참여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Choi, et al. 2019).

다) 디지털 활용(Digital Application)

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산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박수황, 2021). 이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습득하고 분석하며 융합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Roberts et al. 2012). 기업이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저장하고 쉽게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활용이란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잘 이용하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활용은 디지털 기술과 프로그램 언어(R, Python 등)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박수황, 2021). 그 이유는, 충분히 숙련된 디지털 기술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유한다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최고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Neuhütler et al. 2018). 최고경영자는 조직원들에게 분석기술을 교육하고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활용을 촉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조직의 경영 활동을 향상시키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Mathews & Bianchi. 2016). 더욱이, 최고경영자의 디지털 활용은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Joon. 2013). 이는

최고경영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에 접근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디지털 활용의 빈도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박수황, 2021).



제 4 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급변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조직 성과 창출은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김용구, 2020). 세계적인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의 변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같은 중대한 변화들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전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정식, 2008).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으로는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근거한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이 대표적이다(신형덕, 2019). 자원기반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자원은 조직의 전략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실제 수출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유현·이철, 2013). 하지만 자원기반은 안정되고 동질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는 설명력이 높지만, 기술발전과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역동적인 시장에서는 설명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Eisenhardt and Martin, 2000).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동적 역량 관점(Dynamic Capability View)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수출기업들의 경쟁요인과 성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자원기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Ambrosini et al., 2009). 또한 최근에는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원과 역량을 구별하여 수출성과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Morgan et al., 2004).

기업의 수출성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원기반과 사회적 자본이론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수출성과가 결정 요인의 이론적·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송연, 2020).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 기업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자원기반의론을 들 수 있다(Morgan et al., 2004). 기업의 해외수출 성과에 대한 판단요인을 외부요인이 아닌 기업의 내부 조직 관점

에서 찾는 것으로 기업이 보유한 독창적인 유형 및 무형 등의 자원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나타내며, 이상의 경쟁우위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손상혁, 2021).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내부자원은 조직의 전략과 성과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실제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유현·이철, 2013).

1990년 중반 이후 국제경영 분야에서는 다양한 외부와의 관계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수출성과 실적의 결정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이론 및 관계적 교환이론이 대표적인 사항이다(손상혁, 2021). 기업규모의 열세로 인한 보유자원의 부족, 낮은 수준의 기업 인지도로 자원 영입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시 국가 간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등 경영상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들을 관계적 관점인 사회적자본을 활용하여 규명하려는 연구 흐름이다(김정포·이상근,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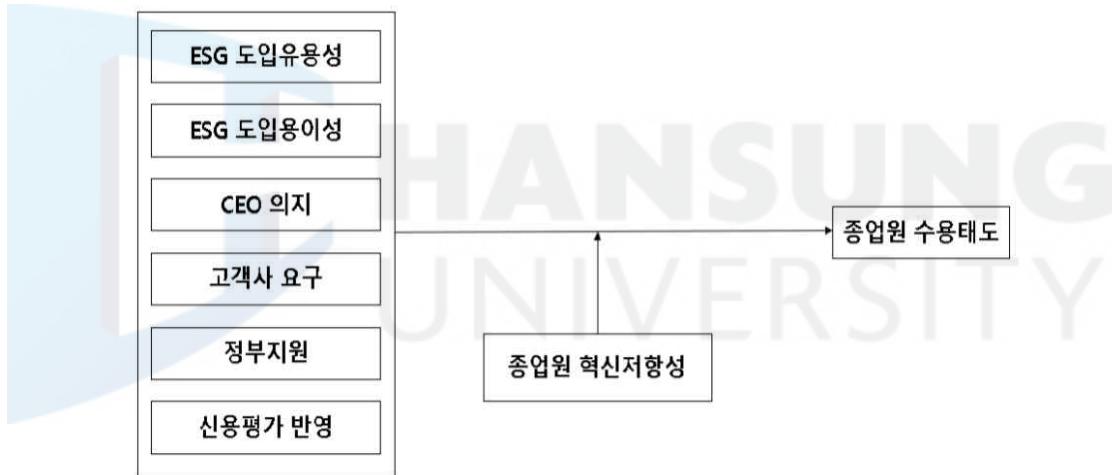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수출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김창수, 2013; 김언정, 2015; 신장현, 201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 및 지향성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이 관계에서 실제 수출을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간의 인식 차이, 또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수출 관련 인맥 등 네트워크 자원, 그리고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김상길, 2019).

여러 선행연구들이 성공적인 수출중소기업의 조직 및 경영상의 특징을 통해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김수욱, 2010; 박우종·박광호, 2012),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격변하는 환경에서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역량을 구축 및 증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손상혁, 2021).

제 5 절 선행연구 모형분석

1) 이윤호(2022)의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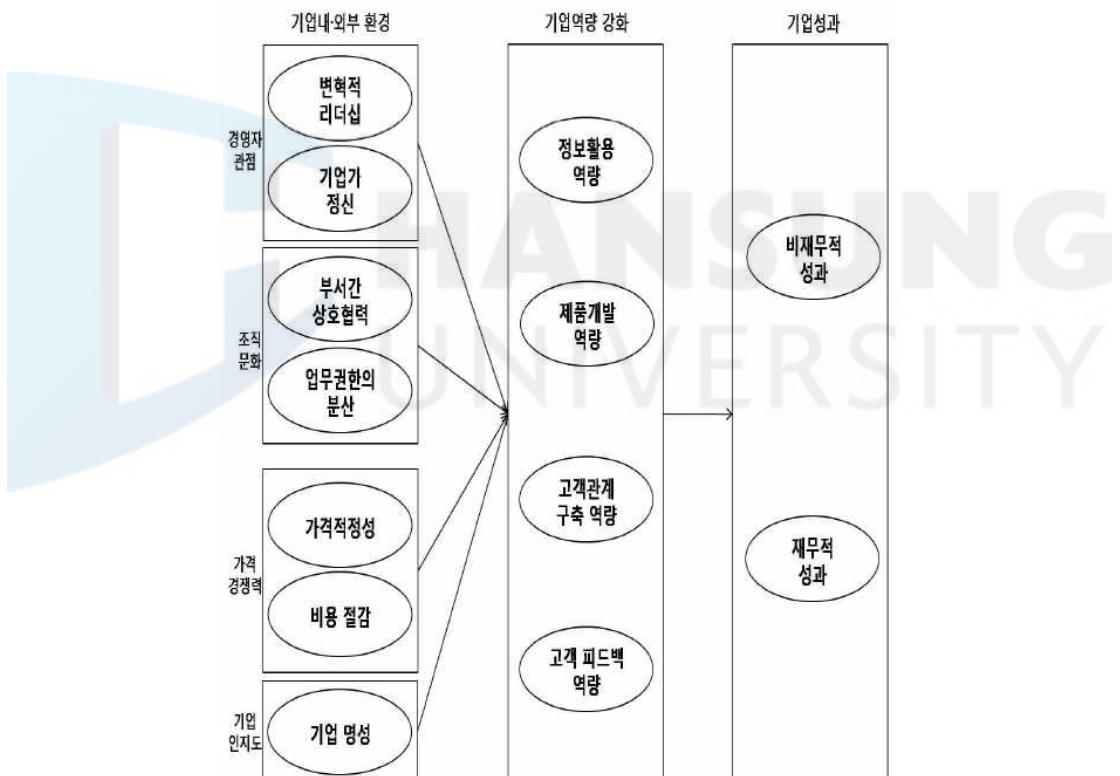
이윤호(2022)의 연구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유주 경영자인 CEO의 의사 결정이 절대적이고, 따라서 CEO의 의지는 종업원의 수용 태도에 큰 영향을 주며, 결국 중소기업에서 CEO 의지는 정책 결정에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그림 2-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2-1] 이윤호(2022) 연구모형

2) 하세근(2011)의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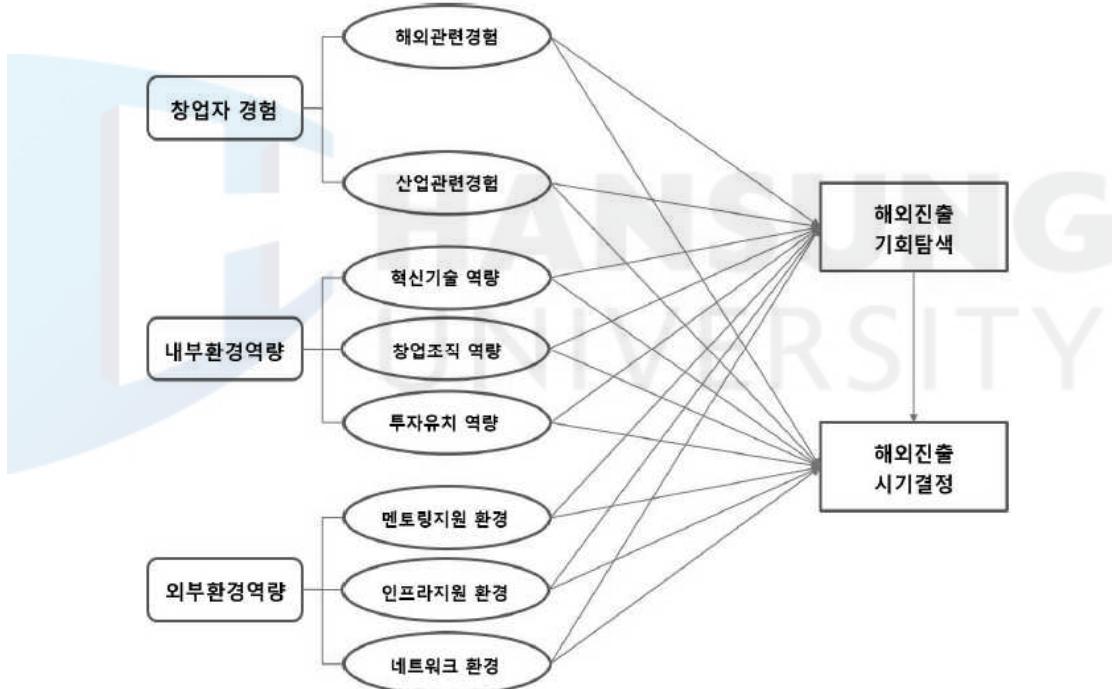
하세근(2011)의 연구에서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고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전문인력과 CEO 태도, 마케팅 및 정보화 역량을 기업 내부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출지원활용과 시장경쟁강도를 외부요인의 측정변수로 설정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세근, 2021). 연구모형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하세근(2011) 연구모형

3) 박태현(2018)의 연구모형

박태현(2018)은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창업자의 경험적 역량으로 해외 경험과 산업 경험을, 그리고 내부 환경적 요인으로 혁신 기술 역량, 창업 조직 역량, 투자 유치 역량을,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프라 지원 환경, 멘토링 지원 환경, 네트워크 지원 환경 등을 선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3]과 같이 수립하였다.



[그림 2-3] 박태현(2018) 연구모형

4) 장동민(2019)의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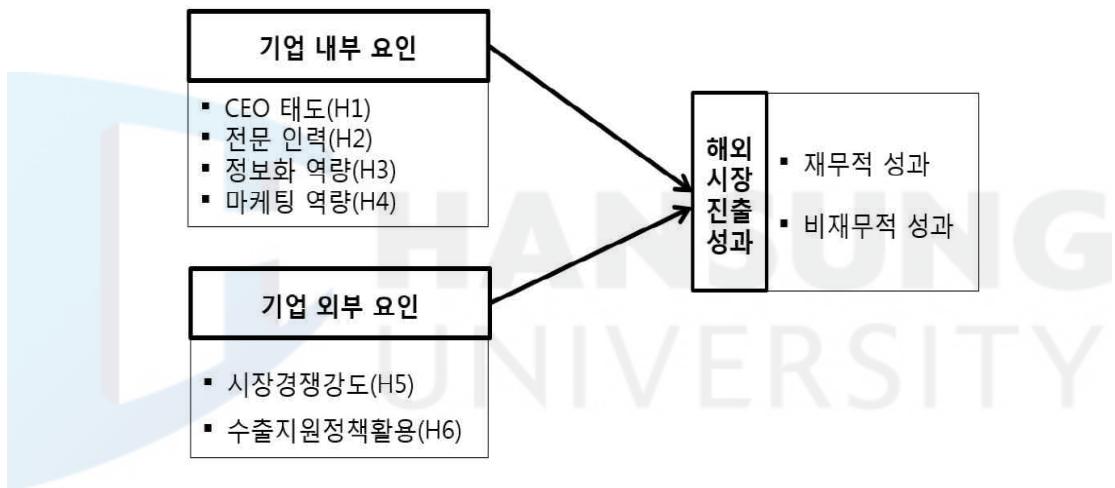
장동민(2019)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1인 창조기업가 특성, 1인 창조기업 특성, 환경요인을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정책을 조절 변수로 삼아 경영성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2-4]와 같이 수립하였다.



[그림 2-4] 장동민(2019) 연구모형

5) 송석근(2015)의 연구모형

송석근(2015)은 본 연구에서 해외시장에서 수출기업의 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를 기업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해외시장에서의 진출 성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환경이 해외시장 진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그림 2-5]와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2-5] 송석근(2015) 연구모형

제 3 장 연구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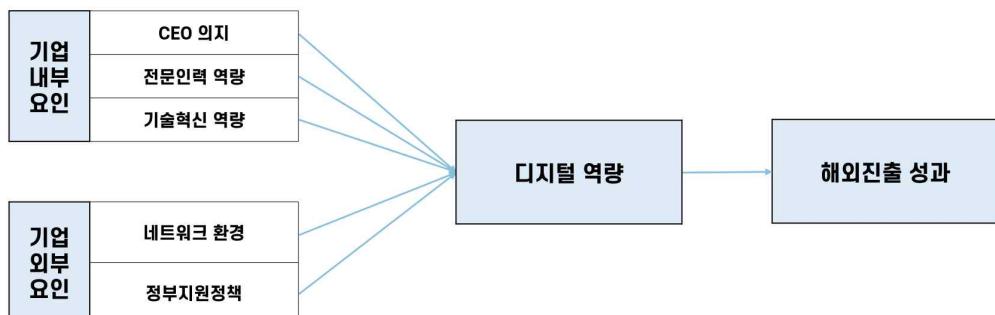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표 3-1>과 같이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독립변수는 기업 내부요인(CEO 의지, 전문인력 역량, 기술혁신 역량)과 기업 외부요인(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으로 구분 지었고, 종속변수는 해외진출 성과로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간의 사이에서 디지털 역량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표 3-1> 선행연구 요약정리

연구자	주 제
이윤호(2022)	중소기업 종업원의 ESG 경영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하세근(2011)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환경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박태현(2018)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동민(2019)	1인 창조기업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송석근(2015)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이홍균(2014), 송석근(2015), 이윤효(2022), 이승권(2018), 박태현(2018), 정호석(2022), 박태현(2018), 이광철(2023), 장동민(2019), 안육봉(202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하세근(2011), 임재오(2013), 김경철(201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수는 박수황(2021), 심규진(202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3-2>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3-2> 연구가설의 정리

연 구 가 설	
H-1	CEO 의지는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전문인력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기술혁신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네트워크 환경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정부 지원정책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CEO 의지는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전문인력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기술혁신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네트워크 환경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정부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디지털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CEO 의지와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H-13	전문인력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H-14	기술혁신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H-15	네트워크 환경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H-16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제 2 절 조사 설계

본 설문의 조사 내용은 총 43문항이며, 기업 내부환경요인 15문항, 기업 외부환경요인 10문항, 디지털 역량 5문항, 해외진출 성과 5문항,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문항으로 <표 3-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3> 설문지의 구성

구분	연구 변수	문항	척도	선행연구
1	내부 환경 요인	CEO 의지	5	이홍균(2014), 송석근(2015), 이윤호(2022)
		전문인력 역량	5	
		기술혁신 역량	5	
2	외부 환경 요인	네트워크 환경	5	박태현(2018), 이광철(2023)
		정부 지원정책	5	
3	디지털 역량	5	Likert 5점 척도	박수황(2021), 심규진(2022)
4	해외 진출 성과	5		하세근(2011), 임재오(2013), 김경철(2019)
5	인구통계학적 특성	8		-
6	총계	43	명목척도	-

내부환경요인의 측정도구는 이홍균(2014), 송석근(2015), 이윤효(2022), 이승권(2018), 박태현(2018), 정호석(2022) 등이 사용한 문항을 CEO 의지, 전문인력 역량, 기술혁신 역량 요인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내부환경요인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외부환경요인의 측정도구는 박태현(2018), 이광철(2023), 장동민(2019), 안육봉(2022) 등이 사용한 문항을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 요인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외부환경요인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역량의 측정도구는 박수황(2021), 심규진(2022)의 선행연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디지털 역량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외진출 성과의 측정도구는 임재오(2013), 김경철(2019)의 선행연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해외진출 성과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총 239장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210장의 설문지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모집단의 규정 및 표본은 <표 3-4>와 같다.

본 연구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빈도 분석,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설문 항목의 정확성과 일반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확인된 타당 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설문 문항들을 평균화하여 측정한 내부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 디지털 역량, 해외진출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CEO 의지, 전문인력 역량, 기술혁신 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 정책, 디지털 역량, 해외진출 성과 측정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효과의 가설 검증을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3-4> 모집단의 규정 및 표본

모집단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임직원
표본단위	서울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소재 기업
조사기간	2023년 4월 20일 ~ 2023년 5월 19일
자료수집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재법
회수된 표본	239부
유효표본	210부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 배포 및 회수된 239건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고 결측치가 있는 응답지 29건을 제외하고 210건의 응답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대, 관련 경력, 수출실적 여부 등으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설문지 분석을 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빈도분석 결과 210명 중 남성이 176명(83.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34명(16.2%)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는 여성보다 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50대가 82명(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는 80명(38.1%), 30대와 60대는 각각 20명(9.5%), 30대 미만은 8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관련 경력의 특성을 보면 20년 이상~29년 이하가 100명(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이 60명(28.6%)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는 50명 이상~99명 이하가 50명(2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명 이상~49명 이하와 10명 미만은 각각 42명(20.0%)으로 나타났다. 수출부서 담당자 수는 2명 이하가 164명(7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 이상~5명 이하는 31명(14.8%)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113명(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상~6년 미만은 35명(16.7%)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 유무는 ‘있다’가 115명(54.8%)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95명(45.2.0%)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해외 직접 수출 실적 유무는 ‘없다’가 129명(61.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있다’는 81명(38.6%)으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성	176	83.8	83.8
	여성	34	16.2	100.0
	총계	210	100.0	
연령	30대 미만	8	3.8	3.8
	30세 이상~39세 이하	20	9.5	13.3
	40세 이상~49세 이하	80	38.1	51.4
	50세 이상~59세 이하	82	39.0	90.5
	60세 이상	20	9.5	100.0
	총계	210	100.0	
경력	10년 미만	60	28.6	28.6
	10년 이상~19년 이하	50	23.8	52.4
	20년 이상~29년 이하	100	47.6	100.0
	총계	210	100.0	
종업원 수	100명 이상~199명 이하	23	11.0	11.0
	10명 미만	42	20.0	31.0
	10명 이상~19명 이하	41	19.5	50.5
	200명 이상	12	5.7	56.2
	20명 이상~49명 이하	42	20.0	76.2
	50명 이상~99명 이하	50	23.8	100.0
	총계	210	100.0	
수출담당자 수	11명 이상	8	3.8	3.8
	2명 이하	164	78.1	81.9
	3명 이상~5명 이하	31	14.8	96.7
	6명 이상~10명 이하	7	3.3	100.0
	총계	210	100.0	
경영기간	10년 이상	113	53.8	53.8
	1년 미만	4	1.9	55.7
	1년 이상~3년 미만	27	12.9	68.6
	3년 이상~6년 미만	35	16.7	85.2
	6년 이상~10년 미만	31	14.8	100.0
	총계	210	100.0	
수출상담 유무	있다	115	54.8	100.0
	없다	95	45.2	45.2
	총계	210	100.0	
수출실적 유무	있다	81	38.6	100.0
	없다	129	61.4	61.4
	총계	210	100.0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내부환경 요인 15문항, 기업 외부환경요인 10문항, 디지털 역량 5문항, 해외진출 성과 5문항의 설문 문항별 측정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Normally)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김혜경, 2021). 기술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기술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제시 기준에 의하면 표준편차 3 이하, 왜도 절댓값 3 이하, 첨도 절댓값 3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는 설문 항목을 제거해야 한다(신건권, 2013), 기업 내부환경요인 15문항, 기업 외부환경요인 10문항, 디지털 역량 5문항, 해외진출 성과 5문항의 개별 측정항목들은 표준편차, 왜도, 첨도 모두 3 이하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고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할 측정항목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 4-2> 기술 통계분석

측정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EO의지1	210	1.0	5.0	3.83	.863	-.696	.453
CEO의지2	210	2.0	5.0	3.86	.709	-.447	.365
CEO의지3	210	2.0	5.0	3.71	.809	-.363	-.241
CEO의지4	210	1.0	5.0	4.20	.792	-.889	.868
CEO의지5	210	1.0	5.0	3.70	.869	-.361	-.050
전문인력역량1	210	1.0	5.0	3.60	.843	-.343	.025
전문인력역량2	210	2.0	5.0	3.71	.773	-.022	-.490
전문인력역량3	210	2.0	5.0	3.76	.807	-.092	-.587
전문인력역량4	210	1.0	5.0	3.57	.851	-.225	-.092
전문인력역량5	210	2.0	5.0	3.87	.650	.032	-.408
기술혁신역량1	210	2.0	5.0	2.91	.831	.566	-.377
기술혁신역량2	210	1.0	5.0	3.01	.844	.214	-.569
기술혁신역량3	210	2.0	5.0	3.12	.813	.534	-.007
기술혁신역량4	210	2.0	5.0	3.12	.803	.220	-.558
기술혁신역량5	210	3.0	5.0	3.40	.580	1.139	.312

네트워크환경1	210	2.0	5.0	3.62	.762	-.032	-.362
네트워크환경2	210	2.0	5.0	3.63	.780	-.099	-.372
네트워크환경3	210	2.0	5.0	3.65	.757	.022	-.409
네트워크환경4	210	1.0	5.0	3.03	.888	-.107	-.112
네트워크환경5	210	2.0	5.0	3.52	.720	.243	-.272
정부지원정책1	210	2.0	5.0	3.65	.788	-.425	-.148
정부지원정책2	210	2.0	5.0	3.69	.838	-.102	-.598
정부지원정책3	210	2.0	5.0	3.94	.789	-.361	-.317
정부지원정책4	210	2.0	5.0	3.56	.757	.055	-.354
정부지원정책5	210	3.0	5.0	3.86	.660	.156	-.716
디지털역량1	210	2.0	5.0	3.83	.782	-.416	-.055
디지털역량2	210	2.0	5.0	3.86	.735	-.214	-.243
디지털역량3	210	2.0	5.0	4.08	.728	-.418	-.129
디지털역량4	210	2.0	5.0	4.00	.755	-.278	-.500
디지털역량5	210	3.0	5.0	4.07	.645	-.062	-.586
해외진출성과1	210	1.0	5.0	3.55	.824	-.128	-.239
해외진출성과2	210	2.0	5.0	3.96	.753	-.336	-.222
해외진출성과3	210	1.0	5.0	3.58	.850	-.067	-.369
해외진출성과4	210	2.0	5.0	3.90	.777	-.266	-.402
해외진출성과5	210	1.0	5.0	3.92	.775	-.543	.842
유효한 N(목록별)	210						

제 3 절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도 분석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타당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각각 활용되었다. 타당도 분석이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반면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요인 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요인으로 묶인 변수들이 동질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최창호, 2013).

한편,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할 경우에 측정되는 값에 대한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측정오차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구분되며, 체계적 오차는 측정도구 자체의 문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타당도 분석과 관련이 있고,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과정, 측정 수단, 측정자 등으로 오차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신뢰도 분석과 관련이 있다(신채상, 2019)

일반적으로 측정의 타당도 분석은 구성개념(Constructs) 타당도 중에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집중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활용하는데,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이를 검정하게 된다(최창호, 2013).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이용한 실증연구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설 검정에 앞서 독립변수인 기업 내·외부요인, 매개변수인 디지털 역량, 종속 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의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실행하였다. 타당도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의 구성개념이나 속성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를 의미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개념의 연구를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타당성 검정이라고도 한다(신채상, 2019). 탐색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수가 다수일 경우에 이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이용하여 측정변수 속성에 내재 되어 있는 소수의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내어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축소하여 단순화시키는 통계적 기법이다(신채상, 2019).

집중 타당도란 같은 요인별로 묶이는 성질, 즉 요인 적재 값이 높은 것으로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의 구성 개념을 측정할 때 하위변수들이 하나의 구성개념을 모두 충실히 반영한다면 하나의 구성개념, 즉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는 것이고, 반면 판별 타당도란 같은 요인별로 묶이는 것(요인 적재값)과 묶이지 않는 것(교차 요인 적재값)이 구별된다는 것이다(최창호, 2013).

탐색적요인분석의 타당도분석을 할 경우, SPSS 프로그램에서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공통성, 설명된 총분산, 회전 성분 행렬인 3개의 표로 산출된다(김혜경, 2021). 첫째,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KMO(Kaiser–Meyer–Olkin)의 모형적합도와 측정변수들의 상관 계수의 행렬이 단위행렬(같은 측정변수들끼리의 상관계수가 1이고, 나머지 측정변수들과는 모두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단위 행렬이 아니라(나머지 측정변수들과 적어도 1개 이상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님)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위한 Bartlett의 구형 성을 각각 검정(예를 들어, $p < .05$ 이면 95% 신뢰수준에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최창호, 2013). 둘째, 공통성에 나와 있는 설명력이 50% 이하의 측정항목을 제거 대상으로 한다. 셋째, 회전 제곱합 적재값(요인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용하며, 1개일 경우에는 추출 제곱합 적재값을 활용)에서 해당 요인이 전체 문항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고, 공통으로 뮤인 요인 모두가 전체 문항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누적 값은 확인(일반적으로 $> 60\%$ 는 되어야 함)하고, 마지막으로 요인이 2개 이상일 경우,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성분(요인)별로 뮤인 요인 적재값(일반적으로 $> .5$)과 성분(요인)으로 뮤이지 않은 교차 요인 적재값(일반적으로 $< .4$)을 확인하여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정하게 되는 것이다(최창호, 2013).

본 연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SPSS ver.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선택하였고, 요인의 구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김혜경, 2021). 먼저 측정 항목에 대한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 4-3>을 보면, KMO와 Bartlett의 검정(최초)에서 표본의 적합 도를 판단하는 KMO 지수값이 .920로 일반적인 수준인 $>.8$ 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p)$ 값이 .000으로 일반적인 기준 .05보다 작게 나타나 단위행렬이 아닌 변수가 하나라도 있는 유효한 결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요인분석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최창호, 2018).

<표 4-3> 측정항목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20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5176.441
	df	595
	유의확률	0.000

<표 4-4>의 공통성 추출 값을 보면, 측정항목 CEO의지5(.446) 이외 모두 일반적 기준인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의 추출 값을 측정항목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50% 이하로 나타날 경우, 해당 측정항목은 제거 대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CEO의지5(.446) 측정항목을 제거하였다.

<표 4-4> 공통성

측정항목	초기	추출
CEO의지1	1.000	.696
CEO의지2	1.000	.663
CEO의지3	1.000	.653
CEO의지4	1.000	.635
CEO의지5	1.000	.446
전문인력역량1	1.000	.553
전문인력역량2	1.000	.641
전문인력역량3	1.000	.590
전문인력역량4	1.000	.573
전문인력역량5	1.000	.842
기술혁신역량1	1.000	.643
기술혁신역량2	1.000	.696
기술혁신역량3	1.000	.785
기술혁신역량4	1.000	.783
기술혁신역량5	1.000	.807
네트워크역량1	1.000	.590
네트워크역량2	1.000	.646
네트워크역량3	1.000	.681
네트워크역량4	1.000	.552
네트워크역량5	1.000	.714
정부지원정책1	1.000	.716
정부지원정책2	1.000	.736
정부지원정책3	1.000	.701
정부지원정책4	1.000	.761

정부지원정책5	1.000	.883
디지털역량1	1.000	.715
디지털역량2	1.000	.712
디지털역량3	1.000	.739
디지털역량4	1.000	.746
디지털역량5	1.000	.888
해외진출성과1	1.000	.608
해외진출성과2	1.000	.795
해외진출성과3	1.000	.688
해외진출성과4	1.000	.809
해외진출성과5	1.000	.742

방법: 프린시펄 구성요소 분석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와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약표인 <표 4-5>에 의하면, 34개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구성개념의 각 요인별 요인 적재값이 일반적인 수준인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교차요인 적재 값도 .4를 하회하고 있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어 더 이상 타당도를 저해하는 측정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김혜경, 2021). 34개의 측정항목을 7개의 그룹으로 확정되었다.

<표 4-5>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약

측정항목	구성요소							공통성
	CEO 의지	전문 인력 역량	기술 혁신 역량	네트 워크 환경	정부 지원 정책	디지 털역 량	해외 진출 성과	
디지털역량5	.818	.146	.104	.268	.204	.199	.196	.893
디지털역량4	.786	.133	.030	.206	.183	.142	.132	.749
디지털역량3	.776	.203	.072	.127	.160	.175	.128	.737
디지털역량1	.709	.139	.039	.302	.144	.145	.261	.724
디지털역량2	.697	.075	.083	.231	.285	.147	.251	.718
정부지원정책5	.117	.881	.222	.143	.071	.099	.094	.884
정부지원정책4	.156	.797	.224	.147	.136	.110	.058	.765
정부지원정책2	.124	.794	.207	.096	.124	.062	.121	.732

정부지원정책1	.019	.783	.233	.173	.092	.021	.079	.713
정부지원정책3	.217	.766	.075	.148	-.062	.060	.188	.704
기술혁신역량4	.071	.182	.850	.073	.098	.070	.012	.780
기술혁신역량3	.081	.266	.840	-.026	.072	.067	-.024	.795
기술혁신역량5	.258	.275	.792	.125	.139	.036	.063	.809
기술혁신역량2	-.079	.112	.772	.213	.051	.078	.165	.696
기술혁신역량1	.003	.115	.758	.179	.134	.043	.054	.643
해외진출성과2	.307	.281	.153	.739	.110	.110	.173	.797
해외진출성과4	.330	.179	.161	.731	.227	.185	.181	.820
해외진출성과5	.298	.203	.097	.688	.220	.223	.168	.740
해외진출성과3	.216	.115	.233	.667	.276	.217	.109	.695
해외진출성과1	.217	.342	.248	.541	.184	.232	.035	.608
네트워크환경5	.278	.120	.147	.190	.729	.185	.031	.716
네트워크환경4	-.006	-.033	.193	.004	.710	.057	.105	.557
네트워크환경2	.229	.120	.045	.186	.705	.215	.029	.648
네트워크환경3	.254	.124	.059	.249	.690	.183	.163	.682
네트워크환경1	.336	.119	.065	.276	.575	.115	.206	.594
전문인력역량5	.267	.138	.096	.201	.125	.811	.183	.846
전문인력역량4	.077	.022	.012	.134	.083	.730	.094	.574
전문인력역량2	.229	.142	.067	.110	.232	.707	.017	.642
전문인력역량1	.084	.022	.111	.123	.169	.651	.250	.550
CEO의지2	.078	.060	.169	.216	-.009	.226	.723	.659
CEO의지1	.351	.177	-.014	.112	.124	.091	.722	.712
CEO의지3	.294	.194	.040	.037	.275	.114	.683	.682
CEO의지4	.319	.247	.086	.184	.208	.304	.546	.638
총계	4.210	4.070	3.761	3.156	3.111	2.788	2.406	
분산의 %	12.756	12.332	11.397	9.565	9.428	8.447	7.292	
누적률(%)	12.756	25.089	36.485	46.050	55.478	63.925	71.217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1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4905.5 55	df	528	유의 확률	0.000

2) 신뢰도 분석

일반적으로 신뢰도 분석은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문항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검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신뢰도 분석 순서는 먼저,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단일차원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성개념이 설명하는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각각 신뢰도를 분석하는 것이다(최창호, 2013).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는 가능성을 말한다(신채상, 2019). 신뢰도는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검정하게 되는데,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신뢰도 분석은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단일 차원성을 확보한 후 각 요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각각의 신뢰도를 분석한다(양행호, 2016).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저해하는 측정항목을 제거하고 단일차원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CEO 의지, 전문 인력역량, 기술혁신 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과 매개변수인 디지털 역량, 그리고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를 설명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김혜경, 2021).

<표 4-6>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디지털 역량은 .920, 정부지원정책은 .911, 기술혁신역량은 .895, 해외진출성과는 .900, 네트워크환경은 .832, 전문인력역량은 .790, CEO의지는 .813의 분석 결과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일반적인 수준인 .6을 상회하고 있어 항목 제거 없이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김혜경, 2021).

<표 4-6> 신뢰도 분석 결과 요약

측정항목	항목 삭제 시 Cronbach의 알파	Cronbach의 알파
디지털역량1	.907	.920
디지털역량2	.905	
디지털역량3	.911	
디지털역량4	.907	
디지털역량5	.881	
정부지원정책1	.899	.911
정부지원정책2	.895	
정부지원정책3	.905	
정부지원정책4	.889	
정부지원정책5	.870	
기술혁신역량1	.886	.895
기술혁신역량2	.882	
기술혁신역량3	.862	
기술혁신역량4	.859	
기술혁신역량5	.870	
해외진출성과1	.897	.900
해외진출성과2	.872	
해외진출성과3	.885	
해외진출성과4	.861	
해외진출성과5	.877	
네트워크환경1	.796	.832
네트워크환경2	.789	
네트워크환경3	.774	
네트워크환경4	.856	
네트워크환경5	.773	
전문인력역량1	.776	.790
전문인력역량2	.746	
전문인력역량4	.782	
전문인력역량5	.650	
CEO의지1	.739	.813
CEO의지2	.811	
CEO의지3	.748	
CEO의지4	.753	

앞서 수행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부 일치도의 신뢰성이 확인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약

측정항목	탐색적 요인분석(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통성	신뢰도분석 Cronbach 의알파
	CEO 의지	전무 인력 역량	기술 혁신 역량	네트 워크 환경	정부 지원 정책	디지 털역 량	해외 진출 성과		
디지털역량5	.818	.146	.104	.268	.204	.199	.196	.893	.920
디지털역량4	.786	.133	.030	.206	.183	.142	.132	.749	
디지털역량3	.776	.203	.072	.127	.160	.175	.128	.737	
디지털역량1	.709	.139	.039	.302	.144	.145	.261	.724	
디지털역량2	.697	.075	.083	.231	.285	.147	.251	.718	
정부지원정책5	.117	.881	.222	.143	.071	.099	.094	.884	
정부지원정책4	.156	.797	.224	.147	.136	.110	.058	.765	
정부지원정책2	.124	.794	.207	.096	.124	.062	.121	.732	
정부지원정책1	.019	.783	.233	.173	.092	.021	.079	.713	
정부지원정책3	.217	.766	.075	.148	-.062	.060	.188	.704	
기술혁신역량4	.071	.182	.850	.073	.098	.070	.012	.780	.911
기술혁신역량3	.081	.266	.840	-.026	.072	.067	-.024	.795	
기술혁신역량5	.258	.275	.792	.125	.139	.036	.063	.809	
기술혁신역량2	-.079	.112	.772	.213	.051	.078	.165	.696	
기술혁신역량1	.003	.115	.758	.179	.134	.043	.054	.643	
해외진출성과2	.307	.281	.153	.739	.110	.110	.173	.797	.900
해외진출성과4	.330	.179	.161	.731	.227	.185	.181	.820	
해외진출성과5	.298	.203	.097	.688	.220	.223	.168	.740	
해외진출성과3	.216	.115	.233	.667	.276	.217	.109	.695	
해외진출성과1	.217	.342	.248	.541	.184	.232	.035	.608	
네트워크환경5	.278	.120	.147	.190	.729	.185	.031	.716	.832

네트워크환경4	-.006	-.033	.193	.004	.710	.057	.105	.557	
네트워크환경2	.229	.120	.045	.186	.705	.215	.029	.648	
네트워크환경3	.254	.124	.059	.249	.690	.183	.163	.682	
네트워크환경1	.336	.119	.065	.276	.575	.115	.206	.594	
전문인력역량5	.267	.138	.096	.201	.125	.811	.183	.846	
전문인력역량4	.077	.022	.012	.134	.083	.730	.094	.574	.790
전문인력역량2	.229	.142	.067	.110	.232	.707	.017	.642	
전문인력역량1	.084	.022	.111	.123	.169	.651	.250	.550	
CEO의지2	.078	.060	.169	.216	-.009	.226	.723	.659	
CEO의지1	.351	.177	-.014	.112	.124	.091	.722	.712	
CEO의지3	.294	.194	.040	.037	.275	.114	.683	.682	.813
CEO의지4	.319	.247	.086	.184	.208	.304	.546	.638	
총계	4.210	4.070	3.761	3.156	3.111	2.788	2.406		
분산의 %	12.75 6	12.33 2	11.39 7	9.565	9.428	8.447	7.292		
누적률(%)	12.75 6	25.08 9	36.48 5	46.05 0	55.47 8	63.92 5	71.21 7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1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캬체咎	4905.5 55	df	528	유의 확률	0.000	

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차원성을 확보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동질성(내적일치도)을 확보한 측정변수들 간의 평균화 등을 통해 변수 계산된 구성개념들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변수들 간의 방향성과 밀집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 1 사이로 나타나며, ± 1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강성천, 2015).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대상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제된 측정항목들을 평균화 및 기타 변수 계산을 실행하였다. 변수 계산된 측정 변수는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 정책, 디지털 역량,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방향성과 밀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이 기술통계분석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CEO 의지는 디지털 역량과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628**로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외진출 성과 .554**, 전문인력역량 .500**, 네트워크 환경 .480**, 정부 지원정책 .423**, 기술혁신역량 .260**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와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530**으로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EO 의지 .500**, 디지털 역량 .491**, 네트워크 환경 .485**, 정부 지원정책 .281**, 기술혁신역량 .240**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 역량은 정부 지원정책과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466**으로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외진출 성과 .435**, 네트워크 환경 .324**, CEO 의지 .260**, 디지털 역량 .242**, 전문인력역량 .240**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환경은 해외진출성과와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592**로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역량 .583**, 전문인력역량 .485**, CEO 의지 .480**, 기술혁신역량 .324** 순으로 나타

났다. 정부 지원정책은 해외진출성과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523**으로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술혁신역량 .466**, CEO 의지 .423**, 디지털 역량 .405**, 네트워크 환경 .319**, 전문인력역량 .281**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와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669**으로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EO 의지 .628**, 네트워크 환경 .583**, 전문인력역량 .491**, 디지털 역량 .405**, 기술혁신역량 .24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성과는 디지털 역량과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669**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환경 .592**, CEO 의지 .554**, 전문인력역량 .530**, 정부 지원정책 .523** 등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측정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대상 측정 항목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 디지털 역량, 해외진출 성과인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검정을 위한 회귀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8> 상관관계분석

측정변수	CEO의지	전문인력 역량	기술혁신 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지원 정책	디지털 역량	해외진출 성과
CEO의지	1						
전문인력 역량	.500**	1					
기술혁신 역량	.260**	.240**	1				
네트워크 환경	.480**	.485**	.324**	1			
정부지원 정책	.423**	.281**	.466**	.319**	1		
디지털 역량	.628**	.491**	.242**	.583**	.405**	1	
해외진출 성과	.554**	.530**	.435**	.592**	.523**	.669**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Pearson 상관계수

제 5 절 가설 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Y의 변화에 대해서 독립변수 X 하나로 결정하기보다는 2개 이상의 독립변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이라 하고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이일현, 2014). 다중 회귀 분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중공선성입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들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하나의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를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이훈영, 2013).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일현, 2014).

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으로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 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입력방식은 엔터방식을 적용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모형요약 표에 있는 Durbin-Watson 지수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한다. <표 4-9>의 모형요약^b에서 Durbin-Watson 지수는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880로 나타나 잔차항의 독립성(즉,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창호, 2018). 다음으로 <표 4-11>의 계수 표에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은 CEO 의지가 1.618, 네트워크 환경이 1.517, 전문인력역량이 1.495, 정부 지원정책이 1.466, 기술혁신역량이 1.340으로 VIF가 10.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혜경, 2021).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최창호, 2018).

<표 4-9>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모형요약^b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1	.748 ^a	.559	.549	.45261	1.880

a.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b.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또한 <표 4-10>의 분산분석표^a는 독립변수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회귀계수(B)가 0이 아니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김혜경, 2021). 분산분석 F값이 51.804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일반적인 수준인 .05보다 작게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B)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표 4-10>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분석	53.061	5	10.612	51.804
	잔차	41.790	204	.205	
	총계	94.851	209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b.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가설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1> 독립변수(내·외부 환경요인)와 종속변수(해외진출 성과) 간의 계수표^a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환경의 t 값이 5.053($p = .000$), 정부 지원정책의 t 값은 4.150($p = .000$), 전문인력역량의 t 값은 3.546($p = .000$), CEO 의지 t 값은 3.040($p = .003$), 기술혁신역량의 t 값은 2.556($p = .011$)로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외부 환경요인 중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높을수록($B = .322$), 정부 지원정책이 높을수록($B = .238$), 전문인력역량이 높을수록($B = .221$), CEO 의지가 높을수록($B = .190$), 기술혁신역량이 높을수록($B = .141$) 해외진출 성과와 정(+)의 방향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외부 환경요인 독립변수 중에서 네트워크 환경($\beta = .289^{***}$)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부 지원정책($\beta = .234^{***}$), 전문인력역량($\beta = .201^{***}$), CEO 의지($\beta = .180^{***}$), 기술혁신역량($\beta = .13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허용 오차	VIF
1	(상수)	-.230	.253		-.909	.364	
	CEO 의지	.190	.063	.180	3.040	.003	.618
	전문인력 역량	.221	.062	.201	3.546	.000	.669
	기술혁신 역량	.141	.055	.137	2.556	.011	.747
	네트워크 환경	.322	.064	.289	5.053	.000	.659
	정부 지원정책	.238	.057	.234	4.150	.000	.682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내·외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환경, 정부 지원정책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표 4-9>의 R 제곱 계수 55%(조정된 $R^2 = .549$)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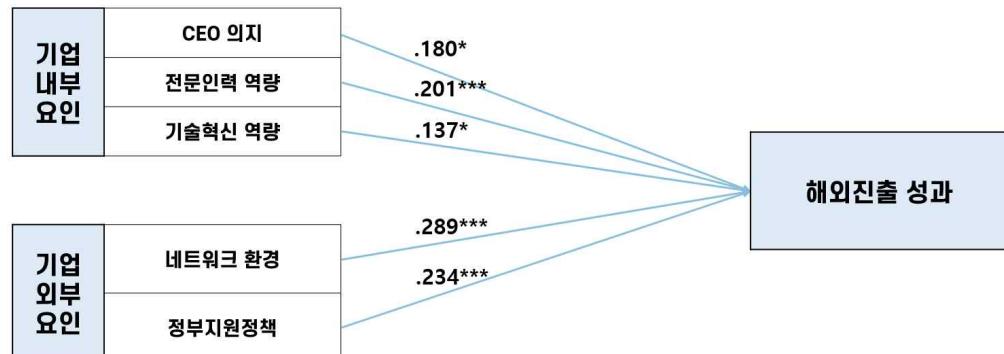
<표 4-12>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다중회귀분석 요약

모형	B	베타	T-value	P-value	VIF
(상수)	-.230		-.909	.364	
CEO의지	.190	.180	3.040	.003	1.618
전문인력역량	.221	.201	3.546	.000	1.495
기술혁신역량	.141	.137	2.556	.011	1.340
네트워크환경	.322	.289	5.053	.000	1.517
정부지원정책	.238	.234	4.150	.000	1.466

$R^2 = 0.559$, 조정된 $R^2 = .549$, $F = 51.804$ ($p = .000$), Durbin-Watson = 1.880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을 통해 확인된 영향 관계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모형

내·외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에 의하면 가설 H-1, H-2, H-3, H-4, H-5는 모두 거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내·외부환경요인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표 4-13>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가 설		검정결과
H-1	CEO 의지는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전문인력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기술혁신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네트워크 환경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정부 지원정책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으로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엔터방식의 입력방식을 적용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모형요약 표에 있는 Durbin-Watson 지수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한다. <표 4-14>의 모형요약^b에서 Durbin-Watson 지수는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934로 나타나 잔차항의 독립성(즉,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최창호, 2018). 다음으로 <표 4-16>의 계수 표에서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CEO 의지가 1.618, 네트워크 환경이 1.517, 전문인력역량이 1.495, 정부 지원정책이 1.466, 기술혁신역량이 1.340으로 VIF가 10.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혜경,

2021).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최창호, 2018).

<표 4-14>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모형요약^b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1	.722 ^a	.521	.509	.44571	1.934

a.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b. 종속변수: 디지털 역량

또한 <표 4-15>의 분산분석표^a는 독립변수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회귀계수(B)가 0이 아니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김혜경, 2021). 분산분석 F값이 44.350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일반적인 수준인 .05보다 작게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B)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김혜경, 2021).

<표 4-15>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분석	44.053	5	8.811	44.350
	잔차	40.527	204	.199	
	총계	84.580	209		

a. 종속변수: 디지털 역량

b.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가설 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6> 독립변수(내·외부 환경요인)와 종속변수(디지털 역량) 간의 계수표^a의 내용을 살펴보면, CEO 의지의 t 값이 5.965($p = .000$), 네트워크 환경의 t 값은 5.328($p = .000$), 정부 지원정책의 t 값은 2.306($p = .022$), 전문인력역량의 t 값은 2.132($p = .034$), 기술혁신역량의 t 값은 $-.887$ ($p = .376$)로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외부 환경요인 중에서 CEO 의지가 높을수록($B = .368$), 네트워크 환경이 높을수록($B = .334$), 전문인력역량이 높을수록($B = .131$), 정부 지원정책이 높을수록($B = .130$), 기술혁신역량이 높을수록($B = -.048$) 디지털 역량과 정(+)의 방향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외부 환경요인 독립변수 중에서 CEO 의지($\beta = .368^{***}$)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환경($\beta = .318^{***}$), 정부 지원정책($\beta = .135^{***}$), 전문인력역량($\beta = .126^{***}$), 기술혁신역량($\beta = -.05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6>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허용 오차	VIF
1	(상수)	.548	.249		2.200	.029	
	CEO 의지	.368	.062	.368	5.965	.000	.618
	전문인력역량	.131	.063	.126	2.132	.034	.669
	기술혁신역량	-.048	.055	-.050	-.887	.376	.747
	네트워크 환경	.334	.063	.318	5.328	.000	.659
	정부 지원정책	.130	.057	.135	2.306	.022	.682

a. 종속변수: 디지털 역량

내·외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표 4-14>의 R 제곱 계수 52%(조정된 $R^2 = .509$)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표는 <표 4-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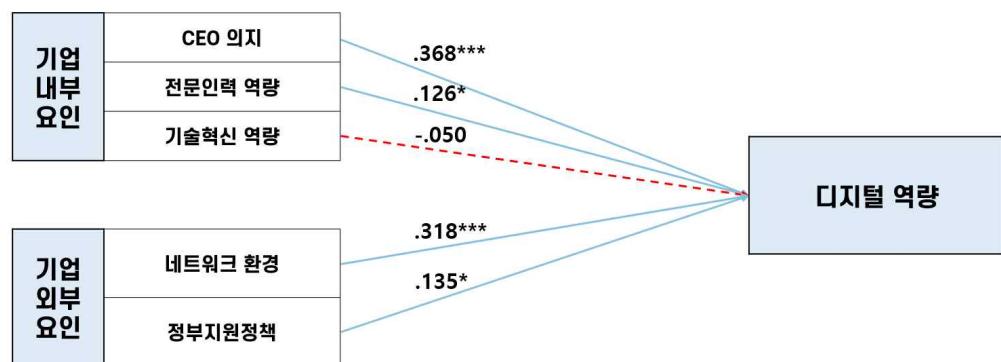
<표 4-17>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다중회귀분석 요약

모형	B	베타	T-value	P-value	VIF
(상수)	.548		2.200	.029	
CEO의지	.368	.368	5.965	.000	1.618
전문인력역량	.131	.126	2.132	.034	1.495
기술혁신역량	-.048	-.050	-.887	.376	1.340
네트워크 환경	.334	.318	5.328	.000	1.517
정부 지원정책	.130	.135	2.306	.022	1.466

$R^2 = 0.521$, 조정된 $R^2 = .509$, $F = 44.350(p = .000)$, Durbin-Watson = 1.934

a. 종속변수: 디지털 역량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의 영향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의 가설 검정 결과 모형

내·외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과 디지털 역량의 영향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약에 의하면 가설 H-8을 제외한 가설 H-6, H-7, H-9, H-10은 모두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내·외부 환경요인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의 가설 검정 결과

가 설		검정결과
H-6	CEO 의지는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7	전문인력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	기술혁신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9	네트워크 환경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0	정부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디지털 역량 1개이므로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입력방식은 엔터방식을 적용했다. <표 4-19>의 모형요약에서 Durbin-Watson 지수는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887로 나타나 잔차항의 독립성(즉,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이 없음)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최창호, 2018). 다음으로 <표 4-21>의 계수 표에서 독립변수가 1개이므로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지 않아도 독립변수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최창호, 2018).

<표 4-19>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모형요약^b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1	.669 ^a	.447	.444	.50222	1.887

a. 예측변수: (상수), 디지털 역량

b.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또한 <표 4-20>의 분산분석표는 독립변수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회귀계수(B)가 0이 아니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김혜경, 2021). 분산분석 F값이 168.062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일반적인 수준인 .05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김혜경, 2021).

<표 4-20>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분석	42.389	1	42.389	168.062
	잔차	52.462	208	.252	
	총계	94.851	209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b. 예측변수: (상수), 디지털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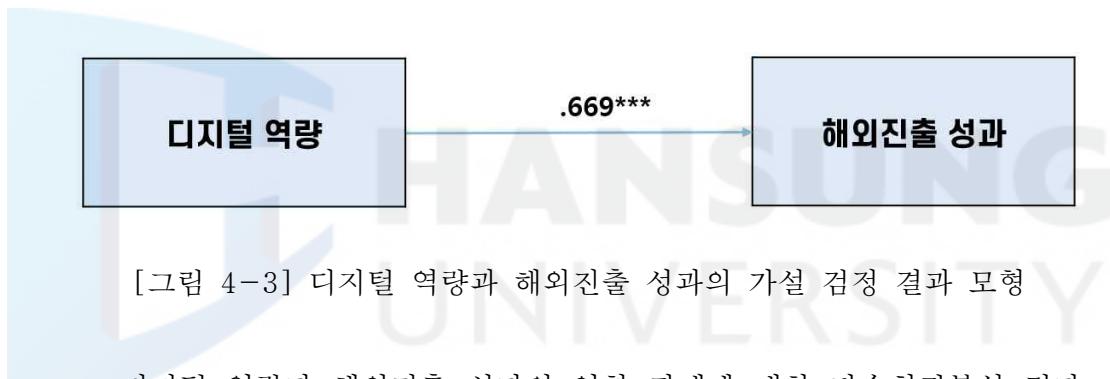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가설 검정을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표 4-21>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의 t값이 12.964($p= .000$)으로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이 높을수록($B= .708$) 해외진출 성과가 정(+)의 방향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 역량의 표준화된 계수($\beta= .669^{***}$)는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973	.219		4.435 .000
	디지털 역량	.708	.055	.669 12.964	.000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모형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요약에 의하면 가설 H-11은 지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디지털 역량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23>과 같다.

<표 4-22> 디지털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결과
H-11	디지털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으로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 역량,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매개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매개변수가 개입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 또는 소멸하는 효과를 의미한다(최창호, 2018). Baron & Kenny의 연구에 의하면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정 방법을 실시하는데, 1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3단계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해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미친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Baron & Kenny, 1996).

다음은 Baron & Kenny의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1단계 해외진출 성과를 종속변수로 투입하고(1단계), 독립변수에 내·외부 환경요인을 투입한 다음(1단계), 추가로 디지털 역량을 독립변수에 투입하여(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표 4-23>에서 Durbin-Watson 지수는 0과 4에서 멀고 2에 가까운 1.867의 수치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표 4-25>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VIF 지수를 살펴보면, 1단계의 VIF(분산팽창요인) 값은 CEO 의지는 1.618, 전문인력역량은 1.491, 네트워크 환경은 1.472, 정부 지원정책은 1.247로 VIF가 10.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의 VIF(분산팽창요인) 값은(김혜경, 2021). CEO 의지는 1.901, 전문인력역량은 1.523, 네트워크 환경은 1.670, 정부 지원정책은 1.275, 디지털 역량은 2.079로 VIF가 10.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어 본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김혜경, 2021).

<표 4-23> 매개효과 1, 3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Durbin-Watson
1	.738 ^a	.545	.536	.45868	
3	.772 ^b	.596	.586	.43366	1.867

a.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b.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디지털 역량

c.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표 4-24>의 분산분석표에서 1단계의 F값은 61.463, 유의확률은 .000< .05이고, 3단계의 F값은 60.071, 유의확률은 .000< .05이므로 독립변수들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김혜경, 2021).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수는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24> 매개효과 1, 3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분석	51.723	4	12.931	61.463
	잔차	43.128	205	.210	
	총계	94.851	209		
3	회귀분석	56.486	5	11.297	60.071
	잔차	38.365	204	.188	
	총계	94.851	209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b.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c. 예측변수: (상수), 정부 지원정책, 전문인력역량, 네트워크 환경, CEO 의지, 디지털 역량

<표 4-25>의 매개효과 1, 3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분석
 계수a 표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
 단계에서(김혜경, 2021), CEO 의지 t 값은 2.948($p = .004$), 전문인력역량
 t 값은 3.620($p = .000$), 네트워크 환경 t 값은 5.500($p = .000$), 정부 지원
 정책 t 값 5.497($p = .000$)은 해외진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디지털 역량 t 값
 이 5.033($p = .000$)으로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매개효과 1, 3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허용 오차	VIF
1	(상수)	-.113	.252		-.449	.654		
	CEO 의지	.187	.063	.177	2.948	.004	.618	1.618
	전문인력 역량	.229	.063	.208	3.620	.000	.671	1.491
	네트워크환경	.349	.064	.314	5.500	.000	.679	1.472
	정부지원정책	.295	.054	.289	5.497	.000	.802	1.247
3	(상수)	-.287	.241		-1.191	.235		
	CEO 의지	.061	.065	.057	.935	.351	.526	1.901
	전문인력 역량	.185	.060	.168	3.060	.003	.656	1.523
	네트워크환경	.238	.064	.214	3.726	.000	.599	1.670
	정부지원정책	.257	.051	.252	5.010	.000	.785	1.275
	디지털 역량	.342	.068	.323	5.033	.000	.481	2.079

a.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매개효과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로 검정할 경우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접근법 중 2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를 먼저 실시한 후, 1단계(독립변수→종속변수)와 3단계(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를 그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최창호, 2018).

한편,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내·외부 환경요인은 1단계 모형에서 회귀계수(비표준화 및 표준화)에 비교하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김혜경, 2021), ①CEO 의지: $.190 \rightarrow .061$ ($p = .000$), ②전문인력역량: $.221 \rightarrow .185$ ($p = .000$), ③네트워크 환경: $.322 \rightarrow .238$ ($p = .000$), ④정부 지원정책: $.238 \rightarrow .257$ ($p = .000$)로 감소하였는바, 내·외부 환경요인은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디지털 역량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an Dyne, Graham 및 Dienesch(1994)에 따르면, 매개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완전 매개 효과와 부분 매개 효과를 구분하였습니다. 이 구분은 1단계와 3단계를 비교하여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회귀 계수(비표준화 및 표준화)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면 부분 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 Effect)로 간주되며, 무의미하게 감소하면 완전 매개 효과(Full Mediation Effect)로 구분하였습니다(정혜욱, 2019).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를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라는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26>과 같다. 결국, 매개모형에서 “CEO 의지와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라는 가설 H-12는 지지 되었고, “전문인력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라는 가설 H-13도 지지 되었으며, “네트워크 환경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라는 가설 H-15와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라는 가설 H-16도 지지 되었다.

<표 4-26>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가설 검정 결과

가 설		검정결과
H-12	CEO 의지와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완전매개)
H-13	전문인력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H-14	기술혁신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기각
H-15	네트워크 환경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H-16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매개효과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obel의 Z검증을 실시한 결과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 한다(Baron and Kenny, 1986), 본 연구는 <표 4-27>과 같이 Sobel Test의 모든 경로에 대한 Z값은 1.96보다 크고, P값은 $p < .005$ 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7> Sobel Test 매개효과 검정 결과

Sobel Test 경로	Z값	P값	결과
CEO 의지 → 디지털 역량 → 해외진출 성과	5.334	.000	매개효과 있음
전문인력 역량 → 디지털 역량 → 해외진출 성과	1.973	.048	매개효과 있음
네트워크 환경 → 디지털 역량 → 해외진출 성과	4.662	.000	매개효과 있음
정부 지원정책 → 디지털 역량 → 해외진출 성과	2.324	.020	매개효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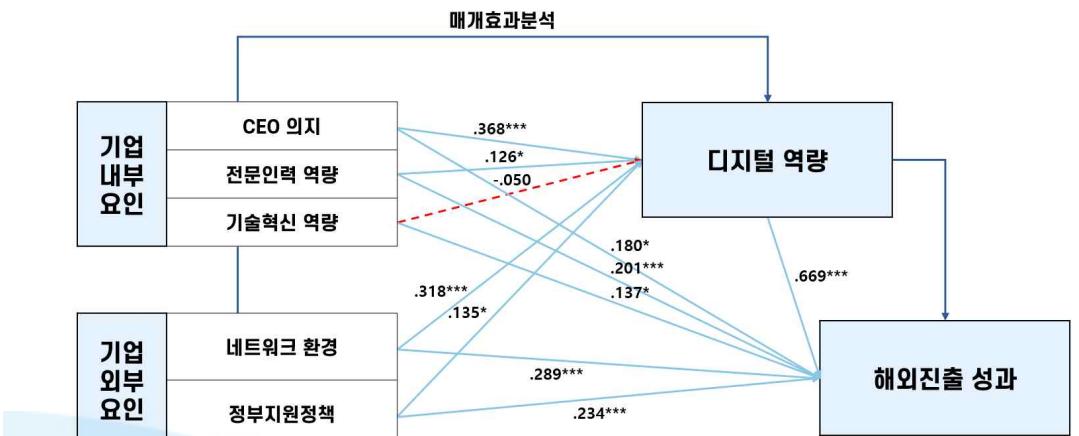
5)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분석 요약

다음의 <표 4-28>은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분석 결과 요약이다. 1단계는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에 대한 영향 관계이고, 2단계는 내·외부 환경요인과 디지털 역량 간의 영향 관계이며, 3단계는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4-28> 매개효과분석 결과 요약

구분	Step 1		Step 2		Step 3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종속변수: 디지털 역량)		(종속변수: 해외진출 성과)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30	-	0.548	-	-.287	-
CEO 의지	.190**	.180**	.368***	.368***	.061	.057
전문인력 역량	.221***	.201***	0.131*	0.126*	.185**	.168**
기술혁신 역량	.141*	.137*	-.048	-.050	-	-
네트워크 환경	.322***	.289***	0.334***	0.318***	.238***	.214***
정부 지원정책	.238***	.234***	0.13*	0.135*	.257***	.252***
디지털 역량	-	-	-	-	.342***	.252***
R ² (조정된 R ²)	.559 (.549)		.521 (.509)		.596 (.586)	
F	51.804***		44.350***		122.499***	
Durbin-Watson	1.880		1.939		1.951	
유의확률: *p< .05 **p< .01 ***p< .001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와 디지털 역량의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내·외부 환경요인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모형

가설 검정 결과 CEO 의지(H-1), 전문인력역량(H-2), 기술혁신역량(H-3), 네트워크 환경(H-4), 정부 지원정책(H-5)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 되었고, CEO 의지(H-6), 전문인력역량(H-7), 네트워크 환경(H-9), 정부 지원정책(H-10)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하지만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연구가설 H-8은 기각되었다. 또한 디지털 역량(H-11)이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CEO 의지와 해외진출 성과(H-12) 간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정 되었고, 전문인력역량과 해외진출 성과(H-13), 네트워크 환경과 해외진출 성과(H-15)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H-16) 간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하지만 기술혁신역량과 해외진출 성과(H-14) 간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대한 가설 검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4-29>과 같다.

<표 4-29> 연구가설 검정 결과 요약

가 설		검정결과
H-1	CEO 의지는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전문인력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기술혁신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	네트워크 환경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정부 지원정책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6	CEO 의지는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7	전문인력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8	기술혁신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9	네트워크 환경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0	정부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1	디지털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CEO 의지와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완전매개)
H-13	전문인력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H-14	기술혁신역량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기각
H-15	네트워크 환경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H-16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 간의 디지털 역량이 매개 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은 막대한 비용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어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별 변수들을 구조화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과 연구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적합도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내·외부 환경요인, 디지털 역량, 해외진출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가설 검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내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 기술혁신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환경요인 독립변수 중에서 전문인력역량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CEO 의지, 마지막으로는 기술혁신역량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의 외부 환경요인인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환경요인 독립변수 중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종속변수인 해외진출 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의 내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환경요인 독립변수 중에서 CEO 의지가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문인력역량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기술혁신 역량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다.

넷째, 중소기업의 외부 환경요인인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환경요인 독립변수 중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종속변수인 디지털 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정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디지털 역량은 해외진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디지털 역량은 내부 환경요인인 CEO 의지와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였고, 전문인력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내부 환경요인인 기술혁신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일곱째, 디지털 역량은 외부 환경요인인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과 해외진출 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정(+)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2) 시사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수 존재하나, 자동차부품 제조 특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사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우선 요인 도출에 의의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내부환경요인인 CEO 의지, 전문인력역량과 외부환경 요인인 네트워크 환경, 정부 지원정책이 해외진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내부환경요인인 기술혁신역량은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자동차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설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전문인력역량, 네트워크 환경과 디지털 역량 강화는 기업 내 최고 결정권자인 CEO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지원전략이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향후 주목해야 할 정책적 요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대부분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의 산업 Value Chain 변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전자업체와 OS 플랫폼, IT 기반 업체 등의 미래자동차산업 기업을 표본 대상으로 넓힌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해외진출 성과 요인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동차회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쌍용, 타타대우)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와 달리 2차, 3차 협력업체의 표본 데이터 수집은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디지털 역량의 3가지 구성요소인 디지털 지식(Digital Knowledge), 디지털 학습(Digital Learning), 디지털 활용(Digital Application)을 향후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면 유의미한 결과 도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력산업으로 3만 여개의 소재·부품 및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연계가 가장 큰 산업으로써 2022년 기준 22만명, 수출액의 3~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미래자동차로 전환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장 확대가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쟁력 제고에 있어 해외시장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장일 것이다. 이에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성천. (2015). 컨설팅 역량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철. (2019).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글로벌 지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호. (2022).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리더십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향, 유재원, 김상연. (2019). “정부지원이 기업역량과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지*, 35(5), 33–53.
- 김상길. (2019). 중소벤처기업의 보유자원과 동적역량이 국제화 지향성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옥. (2010).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벤처경영연구』*, 13(1) pp.87–114.
- 김언정. (2015). 한국 중소기술기업의 국제 기업가 지향성과 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특성변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구. (2020). 중소벤처기업의 조직문화특성이 조직의 유효성과 사회적 태만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식. (2008). 리더십과 흡수역량 및 조직유효성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포, 이상근. (2008). 한국 수출벤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이 해외 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12(3), pp.25–46.

- 김종혁. (2017).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자동차 부품 산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수. (2013).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국. (2021).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제도 활용, 개방형 혁신과 기술혁신 역량 및 기업성과 간의 관계 연구.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성 외. (2001). 일반 국민의 정보통신 활용능력 기준(ICT) 및 교육과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김형철. (2021).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 인지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21(4), 171-180.
- 김회수. (2016). 디지털 환경과 스마트러닝, 『한국열린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10.
- 김혜경. (2021). 정리수납 교육의 참여 동기가 교육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유현, 이철. (2013). 한국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 통합모형 개발-산업 조직이론, 자원기반이론, 관계적 관점의 결합을 중심으로. 『국제경영 연구』, 24(1), pp.78-119.
- 류성민, 윤수현. (2005). 21세기 항공운송시장의 글로벌 경영전략: 발표논문; 항공 및 경영2 : 경영진리더십과 종업원태도간의관계: 직무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5(0), pp.81-100.
- 류숙원, 김상윤. (2010), “정책도구의 선택이 중소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65-90.
- 박수황. (2021). 최고경영자의 디지털역량이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에 미치는

-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우종, 박광호. (201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 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5(4), pp.202-210.
- 박태영. (2020). 기업의 동태적 역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태진. (2017). “정부지원이 중소서비스기업의 개방형 서비스 혁신활동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Vol.18, No.2, pp.225-247.
- 박태현. (2018).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한결, 박인서, 김성환, 채수준, 정양현. (2015). 공공 R&D (참여) 조직의 공생적 학습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경영교육연구』, 30(6), 557-579.
- 신장현. (2018). 정부지원 국제식품박람회가 수혜기업의 시장개척활동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규진. (2023). 창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디지털 역량의 조절효과: 경남 콘텐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동섭, 이정수, 김윤배. (2017). “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4: 117-125.
- 손상혁. (2021).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술역량과 동적역량이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채상. (2019). 컨설팅기관의 협업이 컨설팅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석근. (2015).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 연. (2020). 중소기업의 내부자원과 사회적자본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육봉. (2022). 인지된 정부지원이 기업역량과 의존성을 매개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광, 김진한. (2018), “기술지식 교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폐쇄와 구조적 공백이 급진적혁신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4), 95–105.
- 양행호. (2016). 컨설턴트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고객신뢰, 고객만족, 컨설팅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철. (202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가지향성, 전략적 네트워크 그리고 혁신성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석. (2008).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묵. (2018). “기업간 네트워크가 시장개척성과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 『전문 경영인 연구』, 21(2), 233–254.
- 이승권. (2018). 중소벤처기업 마케팅인력의 핵심역량이 변혁적리더십에 따라 조직시민행동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태, 최진용. (2017). 인지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과 구전에 미치는 영향: IaaS 사용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7(1), 69–92.
- 이애화. (2016). 전문대학생의 디지털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효. (2022). 중소기업 종업원의 ESG 경영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종업원 혁신저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은, 진선미. (2014). 중장년층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러닝 모델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522–533.
- 이재희, 조상미. (2015). “사회적기업간네트워크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중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2), 89–125.
- 이철현, 전종호.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 탐구,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연구』, 20(14), 311–338.
- 이후성, 이정수, 박재민. (2015). “정부 R&D 지원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적 성과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8(1), 73–97.
- 임재오. (2013). 벤처기업의 해외진출동기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상만, 이유환, 서영욱. (2018). “정부정책과 내부혁신요인에 따른 기업혁신 활동 연구: 제조업과 서비스업 집단분석”. 『기업경영연구』, 25(5), 131–157.
- 장동민. (2019). 1인 창조기업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정책을 조절 변수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석. (2022). 경영혁신기법 도입수준과 기술혁신역량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쟁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욱. (2019). 베트남 여성의 한국화장품 브랜드 가치인식이 구매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태. (2019). 창의적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 수업 설계 원리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영.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고찰, 『컴퓨터 교육학회논문지』, 21(6), 25–35.
- 최창호. (2013). 고객과 컨설팅간의 유대관계가 컨설팅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세근. (2011).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환경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용석. (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198-225.



2. 국외문헌

- Ala-Mutka, K. (2011). Mapping digital competence: Towards a conceptual understanding. Retrieved October 26, 2015, from http://ftp.jrc.es/EURdoc/JRC67075_TN.pdf.
- Alba, J. W., & Hutchinson, J. W. (2000). Knowledge calibration: What consumers know and what they think they kno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2), 123–156.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4.890)
- Ambrosini, V., Bowman, C., & Collier, N. (2009). Dynamic capabilities: An exploration of how firms renew their resource bas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ume 20*: pp.S9–S24.
- Bawden. (2015). How Exorcised the Ghost of Jack Welch to Become a 124-Year-Old Startup, Bloom berg Business week.
-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Carlson, J. P. (2009). Vincent, L. H., Hardesty, D. M., & Bearden, W. O.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relationships: A quantitative analysis of consumer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5), 864–876.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6.207)
- Cartelli, A. (2010). Frameworks for Digital Competence Assessment: Proposals, Instruments, and Evaluation. Proceedings of Informing Science & IT Education Conference (InSITE).
- Chang, Y. Y., Dasgupta, S., & Hilary, G. (2010). CEO ability, pay, and firm performance, *Management Science*, 56(10), 1633–1652.
- Choi, K., Jean, R.-J. B., & Kim, D. (2019). The impacts of

- organizational learning capacities on relationship-specific innovation,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042~1066.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2.907)
- Czarnitzki, D., Ebersberger, B., & Fier, 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ollaboration, subsidies & R&D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Finl& & Germany".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2(7), 1347–1366.
- Danneels, E. (2008). Organizational antecedents of second-order competen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9(5), 519–543.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5.471)
- Eisenhardt, K. M. & Martin, J. A. (2000). Dynamic Capabilities: What Are The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10), pp.1105–1121.
- Ferrari, A. (2012). Digital Competence in Practice: An Analysis of Frameworks. <http://jiscdesignstudio.pbworks.com>.
- Lee, Y. J. & W. Tao (2021), Does perceived morality of CEO activism matter? Understanding employees' responses to CEO actions on sociopolitical issues, *Management Decision*, 59(10), pp. 2329–2354.
- Longest Jr, B. B. (1990), "Interorganizational linkages in the health sector,"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15(1), 17–28.
- Mathews, S., Bianchi, C., Perks, K. J., Healy, M., & Wickramasekera, R. (2016). Internet marketing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market growth.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5(4), 820–830.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3.953)
- Mazzarol, T., and S. Reboud (2020), Innovation in Small Firms. Springer Texts in Business and Economic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edition 4, chapter 5*, pp. 131–164, Springer.

- Mirabile, R. J. (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51(8). pp.73–77.
- Morgan, N. A., Kaleka, A., & Katsikeas, C. S. (2004). Antecedents of export venture performance: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68(1), pp.90–108.
- Nieves Rodríguez, J., Quintana Deniz, A. D. J., & Osorio Acosta, J. (2017). Organizational knowledge and collaborative human resource practices as determinants of innovation.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and Practice*, 237–245.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4.745)
- Reynolds, S., F. Cotrino, C. Ifedi and N. Donthu (2020), An exploratory study of executive factors that lead to technology adoption in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Strategy*; Peoria, 30(2), pp. 1–16.
- Roberts, N., Galluch, P. S., Dinger, M., & Grover, V. (2012). Absorptive capacity and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Review, synthesi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is Quarterly*, 625–648.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5.370)
- Schønning, A., Walther, A., Machold, S., & Huse, M. (2019). The Effects of Directors' Exploratory, Transformative and Exploitative Learning on Boards' Strategic Involvement: An Absorptive Capacity Perspective. *European Management Review*, 16(3), 683–698.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2.369)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Wiley.
- Vitorino Filho, V. A., & Moori, R. G. (2018). The role of technological

- capabilities i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companies in the Campinas, SP Tech Hub. *Innovation & Management Review*, 247–268.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2.962)
- Wang, H., A. S. Tsui and K. R. Xin (2011), CEO leadership behaviors,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employees' attitudes, *The Leadership Quarterly*, 22(1), pp. 92–105.
- Westerman, G., Bonnet, D., & McAfee, A. (2014). Leading digital: Turning technology into business transformation. Harvard Business Press.
- Yan, J., & Wakefield, R. (2018). The freemium (two-tiered) model for individual cloud services: Factors bridging the free tier and the paying tier.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29(1), 47–61.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1.571)
- Zahra, S. A., & George, G. (2002b). The net-enabled business innovation cycle and the evolution of dynamic capabilitie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3(2), 147–150. (Journal Impact Factor Trend 2019/2020 3.585)
- Zhang, Y., X. Zhang, J. Zhao, and Y. Luo (2019), How gr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can promote green employee behavior in China: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perspective, *Sustainability*, 11(19), DOI: 10.3390/su11195408.

부 록

[설문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역량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연구를 위한 본 설문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고자 작성된 설문조사입니다.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을 위해 변환 처리되어 관련정보가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신 귀하게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스마트융합 컨설팅학과
스마트융합 컨설팅전공

지도교수 : 주형근
석사과정 : 조영성
연락처 : 010-3897-7712
E-mail : ibisfury@naver.com

I.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내부 환경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CEO 의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CEO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 CEO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 CEO는 해외직접 수출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 CEO는 수출 업무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 CEO는 국내시장 보다 해외시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인력 역량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수출업무 담당자는 수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 수출업무 담당자는 수출관련 업무만 담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 수출업무 담당자는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 수출업무 담당자는 외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 수출업무 담당자는 바이어와 직접 무역상담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술혁신 역량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혁신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기술력에 대해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외부 환경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네트워크 환경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공공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킹이나 이벤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동종업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쌓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비 동종업계 모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쌓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매출실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 지원정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정부 자금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찾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정부의 사업화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찾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정부의 R&D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찾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정부의 입주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찾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정부의 교육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찾아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역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마케팅하기 위해 디지털 채널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핵심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화, 디지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 어 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외진출 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최근 임직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수출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정보가 내재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제품 경쟁력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최근 신규고객 창출률이 높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위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4. 귀사의 종업원 수는?

- | | |
|-------------------|-----------------|
| ① 10명 미만 | ② 10명 이상~19명 이하 |
| ③ 20명 이상~49명 이하 | ④ 50명 이상~99명 이하 |
| ⑤ 100명 이상~199명 이하 | ⑥ 200명 이상 |

5. 귀사의 수출부서 담당자 수는?

- | | |
|----------------|---------------|
| ① 2명 이하 | ② 3명 이상~5명 이하 |
| ③ 6명 이상~10명 이하 | ④ 11명 이상 |

6. 귀사의 경영 기간은?

- | | |
|---------------|----------------|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3년 미만 |
| ③ 3년 이상~6년 미만 | ④ 6년 이상~10년 미만 |
| ⑤ 10년 이상 | |

7. 귀사는 최근 3년 내 해외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8. 귀사는 최근 3년 내 해외 직접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small & medium size business in overseas entr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Competence

Cho, Young-Sung

Major in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Dept. of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In a situation where Korea's automobile industry is gaining great popularity around the worl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anufacturing domestic automobile parts are attempt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their growth potential in the overseas market. However, overseas expansion entails huge costs and risks, so the main purpose is to identify the impact relationship that affects the performance of overseas expansion an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capabilities.

To this end,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small and medium-sized automobile parts manufacturer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Gyeongsang-do, and Jeolla-do fo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the 239 collected questionnaires, 21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excluding 29 questionnaires that were insincere and had missing values. Based on the final 210 samples, the research hypothesis was verified by confirming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fit of the research mode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of SME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overseas expan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all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excep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digital capability. Third, it was found that digital capabilit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overseas expan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all digital capabilities mediated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overseas expansion performance, excep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hypothesis verification as described above, it is judged that the will of the CEO, the top decision maker in the company, is very important in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overseas expan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automobile parts manufacturing companies.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sustainable mid- and long-term support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and in particular, it is hoped that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a policy part to pay attention to in the future.

【Keywords】 SME environmental factors, Overseas expansion performance,
Digital capabilities, Auto parts industry